

기후위기 대책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의정단상

정다은

광주시의원



2024년의 여름은 추석을 앞두고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계속되는 무더고 습한 날씨 속에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열대야일수, 평균 기온, 시간당 폭우, 해수면 온도 등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실외에 있는 것 자체가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고온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후학자와 기상학자들은 이러한 기후 변화를 ‘기후위기’로 칭하며, 앞으로 더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름에는 기록적인 고온현상이, 겨울에는 극한의 추위가 찾아올 것이며, 폭우, 폭설, 홍수, 가뭄 등의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의 삶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실제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을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탓에 제철 농산물의 수확량은 급감했고 가격은 폭등했다. 또 한낮의 거리에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실외에서 일하는 건설, 농업, 어업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실제 우리 지역

에서도 농작물을 손보거나 에어컨을 설치하며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이 폭염 속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2026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할 실정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10일 국회의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에서 “기후위기를 절박한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지구를 지키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는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그 실천적 노력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지난 9월 10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원자력발전과 원전 생태계 회복 덕분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량 감소는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증가와 경기 둔화에 따른 산업위축이 배출량 감소의 요인이라는 것인바, 현 정부가 과연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지, 실천계획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지을

수 없다.

광주시의원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엄마인 필자는 올해 여름을 나며 ‘이토록 극심한 더위와 같은 기후변화도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최악의 경제위기, 최악의 취업난, 최악의 안보 위기, 최악의 민주주의 위기와 더불어 최악의 기후위기까지 겹친 이 현실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이가 놓이는 상황은 너무나 서글펐기 때문이다.

‘지구는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말이 있다. 빌려 쓰고 있는 지구를 망가뜨리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일이다. 우리들이 겪는 폭염,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가 우리 다음세대에게는 일상적 기후가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주민자치회의 소동행사나 기후관련 시민단체의 소규모 행동에 기댈 수 없다. 지금이라도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기후, 기상 전문가 뿐만 아니라 사회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정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실천적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정치인들과 정부 역시 기후문제 만큼에 있어서는 정쟁을 멈추고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필자 역시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기후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부디 내년 여름에는 모두가 안녕할 수 있기를 바란다.

社說

전남 ‘1개 의대·2개 병원’ 현실성 있나

지역간 갈등봉합 등 우선돼야

전남도가 용역기관을 통해 국립의대 1곳과 대학병원 2곳을 설립하는 추진안을 마련했다.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12일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안을 밝혔다. 의대 입학정원은 2026학년도 타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의대 정원 규모를 고려하되 지역의 의료인력 수요를 감안해 200명 내외로 했다.

대학병원은 총 1000~1200병상(한 곳당 500~600명) 규모로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설립하되 병원별 구체적인 규모는 대학에서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각 대학병원은 지역 특성에 맞춰 특화 진료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소요 예산은 1000병상 기준 7000억 원 가량으로 분석됐다. 예산은 국가가 20~25%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한다. 용역사는 2개 대학병원 신설로 커지는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는 전남도가 병원 설립비용의 30% 수준의 예산 지원을 제시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걸림돌이다. 정치권의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압박까지 가해지고 있다. 전남 내부에서도 의대 후보지 선정을 놓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가 제시한 ‘1개 의대·2개 병원’이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1개 의대 신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 7000억 원 이상의 신설비용과 대학병원 유지비용을 감안한다면 2개 대학병원은 정부 설득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현장에서 의료공백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동력을 잃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전남도내 의대신설은 중단되서는 안 된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이라는 열악한 의료여건 속에 도민들의 건강·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남도내 의대신설은 절실하다. 이번 제시안이 정부를 설득할 확실한 카드가 되기 위해서는 동서지역간 갈등 봉합과 함께 지역 정치권과 모든 도민들의 지지가 필요해 보인다.

중대범죄 임금체불, 엄정하게 단죄해야

지역 체불액 전년比 50% 폭증

추석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노동자 6000여 명이 체불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과 제조업 불경기에 대우위니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겹쳐 체불 액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분열과 팬덤의 정치가 만든 결과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12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광주·전남을 통틀어 6016명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23명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다. 체불액은 지난해 8월 기준 379억 원에서 올해 8월 567억 원으로 50% 가까이 폭증했다. 지역내 건설업과 제조업의 불황 여파가 크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대우위니아그룹 노동자의 임금 체불 여파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당장 광주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공장에 서만 노동자 251명이 임금과 퇴직금 등 114억여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가족 해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그야말로 중대범죄인 셈이다. 개인과 가족을 넘어 국가경제와 시장 전반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임금체불을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영역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법을 어긴 ‘반사회적 중대범죄’를 법을 이유로 방치해선 안된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한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도 펼쳐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 여전히 체불이 만연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1일(현지시각) 미 캔자스주 멜번 인근 고속도로에서 주민들이 911테러 23주기를 추념하며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2002년 911테러 1주기 이후 이곳에서 해마다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국기를 흔들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대추 밤을 돈사야 추석을 차렸다/이십 리를 걸어 열하룻장을 보러 떠나는 새벽/막내딸 이쁜이는 대추를 안 준다고 울었다.” 시인 노천명이 ‘장날’을 발표한 것은 1938년. 차가운 성격에 고집까지 센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지만 어릴 적 고향이나 토속적인 문화 등은 끔찍하게 사랑했다고 한다. 이 시에서도 그는 새벽에 집을 나서야 추석 대목장을 볼 수 있는 궁벽한 시골 마을, 넉넉치 않은 살림이지만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대추나 밤을 팔러 나가는 모습을 서정적으로 그려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미당 서정주도 여유로움과 정겨움이 넘치는 추석을 좋아했다. “추석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아/온 식구가 모여서 송편 빚을 때/그 속에 푸른 풋콩 말아 넣으면/휘영청 달빛은 더 밝아오고/뒷산에서 노루들이 좋아 울었네/“저 달빛엔 꽃가지도 휘이겠구나!”/달 보시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대수풀에 올빼미도 덩달아 웃고/달님도 소리 내어 깔깔거렸네.” (서정주 추석 전날...)에도 전쟁 이후 모두가 힘들 때, 가족이 모여 함살로 송편을 빚는 추석의 정취가 가득 담겨있다.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식구들이 둘러앉아 푸른 풋콩을 넣어 빚어낸 송편, 그 모습을 보고 뒷산의 노루까지 좋아라 웃는다는 그의 사상도 어제처럼 선명하다.

한가위의 정취

옛 조상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했다. 하늘은 맑고 높으며, 들판에는 풍요로운 결실이 넘실대는 절기에 대한 찬사다. 풍성한 계절을 빚대 ‘웃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이라는 속담도 전해온다. 추석날 펼쳐졌던 민속놀이도 풍년을 자축하는 행사가 이었다. 농사일로 바빴던 일가친척이 만나 하루를 즐기며 정을 나누고 조상의 은덕을 기린다는 의미도 컸다.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추석이 되면 갓 수확한 햅곡식을 조상에게 바치는 차례를 지낸다.

추석이 나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추석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이른 곳은 13일부터 연휴가 시작될 터다.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데다 두 달여 지속되는 폭염 등으로 예전과 같은 정겨움은 많이 사라진 듯 하다. 정치와 경제, 사회 안팎까지 국내·외 상황도 어수선하다. 그래도 추석은 휘영청 밝은 보름달 아래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햅쌀이 영글고 머루나 다래 같은 자연이 준 선물도 산야에 풍성할 것이다. 꽃가지 마저 휘게 할 밝은 보름달, 그 달빛 아래 힘들고 주름진 일상은 잠시 묻어두고 모두들 ‘좋아라 깔깔 웃게 만드는’ 한가위의 정취를 만끽할 일이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